

수출 유망 농업기술 발굴 학술 토론회

농진청, 수출 유망 농업기술 적용 기자재·품종 등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7일 본청(전주) 국제회의장에서 수출 유망 농업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 기관 전문가와 농업기술 개발자 등이 참석해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수출 유망기술과 농기자재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부 수출 유망기술 개발 배경 및 기술 소개에서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외국의 농업환경과 기술 수요에 부합해 수출잠재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현황을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농기계 핸들에 바로 부착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조향장치 △겨울철 보온 성능 강화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에어로겔 다겹보온 커튼 △저위도 국가 기후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 △불·가을 생산, 기계화 가능 메밀 품종 △무인 해충예찰장치 등 7가지 기술을 다룬다.

이어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트

라(KOTRA),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시보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가 참석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발굴한 수출 유망 농업기술은 외국의 농업 분야 수요와 연계해 맞춤형 기술 묶음(패키지) 수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수출 유망 농업기술 경진대회'를 열고 수출 기술 발굴을 정례화해 해외 실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이 직면한 농

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중동 국가는 사막기후를 극복하는 옥수수 재배 기간 연장 기술 등남아 국가는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직농장 환경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 기술, 중남미 국가는 농업 생력화에 대비한 현지 맞춤형 농기계 도입 등 해결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해 유망 수출 농기자재를 지속해서 발굴함으로써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세계적인 케이(K) 농업기술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연금, 기금 관련 세무 협약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 '맞선'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나다 순)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 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년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

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4개 기관은 2019년 말 447.8조에서 2023년 말에는 700.9조로 증가했다.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 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북문화재단, 정음 배영교 정음어고서 'JB인문학 강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후원으로 운영하는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정음 배영교고등학교와 정음여자고등학교에서 2024 JB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두 학교에서 실시한 인문학 강좌에는 '나는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의 저자 이형재 작가가 '중하위권에서 최상위권이 된 최고의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형재 작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이유를 납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며 "공부를 계획 없이 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때 도움이 될 방법 3가지, 시험 당일 긴장을 푸는 노하우 등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상세히 풀어냈다.

특히, 이 작가는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에 진학하든 답은 없으니 본인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면 된다."며,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기존에 작가님 책을 구매하여 읽고 있었는데, 실제로 읽고 강연을 듣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3개 사업장 적발

전북환경청, 관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장 20개소 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식)은 관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3개소의 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6월중 진행했으며, 전(全) 항목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운영부하가중으로 폐수 적정 처리가 어려워 인근 하천, 호소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총 26건 중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관련 위반이 12건(46.2%)을 차지한 바, 해당 사업장들은 그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이크틸아미드가 허가기준 이상 검출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로 적발된 1건은 고발대상으로, 해당 배출시설은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시설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 11건에 대해서는 적정 신고토록 경고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총인, 총유기탄소량 등 수질오염물질에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6건은 초과된 농도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별 사용중지

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질 오염물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맞춤형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단기간에 실시하였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인·허가 기관에서도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검토와 점검을 당부하였다. /김욱기 기자

중기중앙회, '2024 제2차 원로위원회 정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제2차 원로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로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제2차 원로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특별위원회로 전·현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로 이사장 2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권혁홍 원로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원로로서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보태 후배 중소기업인들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새만금청,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16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며, 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만금청은 김경안 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화용컵 세척기를 활용하고, 손수건과 장바구니를 사용을 권장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새만금지역 환경정화활동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월 9일에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군산시·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공사·입주기업과 함께 제1차 합동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김경안 청장은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참여자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과 김합술 국립새만금건축박물관장을 지목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건축박물관이 함께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